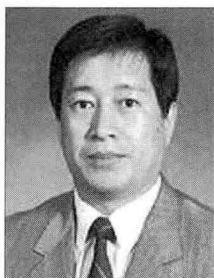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⑭



최대휴 과장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단미사료산업과 협회의 뒷받침은 각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필자의 한국단미사료산업과의 인연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직위에서는 건초류의 수입에 따른 검역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니 20년을 이어온 인연이 각별하다. 되돌아보면 단미사료의 무역제도와 수입개방 그리고 현재의 건초수입에 따른 검역 등 주로 단미사료의 교역과 관련된 업무와 밀접한 인연이 있었다.

1986년 이래 단미사료산업과의 인연을 몇 가지 회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86년 국제협력과 근무와 더불어 당시 재무부가 추진한 관세분류의 HS(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도입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4단위 분류체계인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체계를 관세부와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 흐름과 교역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10단위 상품분류체계로의 개편이었으며, 도입절차를 완료하고 1988.1.1부터 시행되었다. 이 상품분류는 기존 수입제한품목 및 관세율 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단미사료는 유사 상품이 단일의 CCCN 상품분류에 통합되어 있어 이를 새로운 10단위 체계로 세분하여 재분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는 이러한 새로운 관세체계아래서의 관세율 개편이었다. '88년에 확정된 '89년부터 '93년까지의 관세율 개편 5개년 계획에는 전체 관세율이 '88년 18.1%에서 '93년까지 7.9%로, 농산물은 25.2%에서 8%로 인하조정되었다. 이 개편계획에는 농가소득작물, 이들 작물과 직접 대체되는 품목 및 동가공품 592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계획이 유보되었다. 단미사료는 축산농가의 원자재로서 관세인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통하여 안정적 공급기반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단미사료산업에 대한 회고

품목간 균형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는 일련의 수입자유화 과정이다. 당시 상당수 사료곡물과 단미사료는 양곡관리법 및 사료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통합공고로 수입을 규제하여왔다. 골분, 사료용 근채류, 육·설육의 분·조분·펠리트, 어류의 웨이스트, 어류의 분·조분·펠리트, 참깨유박, 무기질 및 광물질 사료, 향미제 사료 등이 이들 품목의 예이다. 이들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수입추천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대외개방정책, 한미 통상마찰 해소,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GATT 회원국 차원의 부담분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장벽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GATT BOP 위원회 한국의 BOP졸업문제 협의에 앞서 1989년 4월 '89 ~ '9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발표되었고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은 '88년 75.1%에서 '91년에 86.2%로 상향되도록 예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상당수 주요 단미사료는 일단 개방계획에서 유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규제도 UR 협상결과 관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1995년 WTO 출범과 더불어 수량제한적 수입규제는 철폐되고 관세로 전환된 수입제도가 기초가 되어 FTA협상, DDA협상 등에서 추가적인 관세인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 정도로 단미사료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뒷받침 하면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협회의 유동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투철한 소명의식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개방문제의 전환기 때 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설득으로 정책 담당자들을 이해시켜 산업보호에 기틀을 마련하셨다.

그동안 개방이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의 선택은 더 이상 당해 국가의 독자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글로벌화 된 시장상황에서는 좁게는 산업 종사자로부터 넓게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까지 유형, 무형의 자산에 대한 경쟁력에서 생존과 발전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끊임없는 수입축산물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추구한다. 양질의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고품질, 가능성이 가미된 단미사료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협회창립 30년을 전환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단미사료산업이 보다 과학적인 품질관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리 축산물 공급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㉟